AI페퍼스, 몽골 출신 목포여상 어르헝 낙점할 듯

5일 여자배구 신인 드래프트…키 194.5㎝ 미들 블로커 활약 기대
지난해 인삼공사 주전 세터인 염혜선 부모가 입양…귀화 절차 중
김형실 감독, 트레이드 통한 선수 영입 등 투트랙 전력 보강 추진

AI페퍼스 프로배구단이 올시즌 개막을 앞두고 투트랙 전략으로 전력 보강에 나선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30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드래프트에서 미래 자원과 즉시 전력감을 보강하고 꾸준히 타 팀과 접촉해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이 창단 후 2번째 시즌을 맞는 상황에서 장·단기 전략으로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다음달 5일 열리는 2022-2023시즌 여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 감독은 지난 시즌 최하위 팀에 주어지는 우선지명권(1명)으로 체웬랍당 어르헝(목포여상·미들블로커)을 낙점할 계획이다.

2004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난 어르헝은 프로의 꿈을 안고 2019년 한국에 와 2021년 한국인 부모에게 입양됐다.

KGC인삼공사의 주전 세터인 염혜선(31·목포여상 출신)의 부모가 어르헝을 입양해 '염어르헝'으로 불린다. 비시즌마다 모교를 방문하고 있는 염혜선이 부모에게 어르헝의 입양을 적극 권유했다고 한다.

키 194.5㎝의 어르헝이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하면 앞으로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에서 부동의 미들블로커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AI페퍼스는 장기적으로 장신 미들블로커를 영입함으로써 전위의 '높이'를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OVO 규약에 따르면, 귀화 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귀화 신청 후 귀화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전 구단의 동의로 귀화 절차 중인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어르헝은 후자의 사례다.

배구계에 따르면, 어르헝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한국인 부모에게 입양돼 귀화에 필요한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만 본다고 한다.

어르헝은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아 입단하더라도 귀화 승인이 완료된 뒤에야 프로 무대에 설 수 있다.

김형실 감독은 "어르헝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주목받는 선수임에는 틀림 없지만 즉시 전력감으로 뛸 수 있는 에이스는 아니다"면서 "구단의 장래를 보고 뽑는 선수인 만큼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라운드 1순위 지명권과 별도로 추첨 확률 1순위를 받은 AI페퍼스를 포함해 지난 시즌 최종순위 역순인 페퍼저축은행 35%, 흥국생명 30%, IBK기업은행 20%, KGC인삼공사 8%, GS칼텍스 4%, 한국도로공사 2%, 현대건설 1%의 확률로 추첨을 통해 선수를 뽑는다.

AI페퍼스는 드래프트에서 쓸만한 재목을 고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드래프트에 16개 학교 졸업 예정자 49명이 낙점을 기다리고 있으나 배구계는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I페퍼스로서는 불운인 셈이다. 창단했던 지난해도 같은 이유로 드래프트 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김형실 감독은 "올해도 역시 선수층이 엷어 어떤 선수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지명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페퍼저축은행은 기존 구단들을 상대로 트레이드를 통한 전력 보강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FA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에는 박정아와 김희진 등 굵직한 선수들이 FA자격을 얻는다.

김 감독은 "올시즌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 구단 관계자 등을 접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선수 지명권을 양도해서라도 팀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선수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에서 2022 아시아배구연맹(AVC)컵 국가대표로 선발된 황지민(중앙여고·아웃사이트 히터), 고서현(제천여고·아웃사이드 히터 겸 아포짓 스파이커), 임혜림(세화여고·미들 블로커)과 박은지(일신여상·세터), 김보빈(한봄고·아웃사이드 히터 겸 미들 블로커) 등이 상위 순번에 지명될 선수로 꼽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신 미들 블로커로 활약이 기대되는 목포여상 어르헝. 〈목포여상 제공〉

세리나 윌리엄스가 30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첫날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단카 코비니치(80위·몬테네그로)를 2-0으로 물리친 뒤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퇴 무대? 윌리엄스 "아직 뛸 만 하네"

US오픈테니스 1회전 승리 "은퇴 관련 애매한 표현 계속 남겨두고파"

"오늘 코트에 들어설 때 느낌은 앞으로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 코트 위에서 좀처럼 웃는 표정을 보기 어려운 세리나 윌리엄스(41·미국)지만 '은퇴 무대'로 삼은 올해 US오픈에서는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이다.

세계 랭킹 605위인 윌리엄스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단카 코비니치(80위·몬테네그로)를 2-0(6-3 6-3)으로 물리쳤다.

1981년생 윌리엄스는 이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국 패션 잡지 보그를 통해 올해 US오픈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가능성을 시사한 윌리엄스가 이날 졌더라면 그의 현역 시절 마지막 단식 경기가 될 뻔했다.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에 한 살 많은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와 한 조로 출전, 단식에서 탈락하더라도 복식 경기가 남기는 하지만 그의 이날 경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 쏠렸다.

관중석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핵 주먹' 마이크 타이슨, 배우 휴 잭맨, 은퇴한 스키 선수 린지 본 등이 모습을 보였다.

AP통신은 "윌리엄스에 대한 응원 소리는 그 어느 경기보다 컸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고, 윌리엄스 역시 "코트에 들어설 때 엄청난 환영에 놀랐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3회 우승, 이 부문 통산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유한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마거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24회)과 동률을 이룬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만 따져서는 이미 윌리엄스의 23회가 최다 기록이다.

2회전에서 세계 랭킹 2위 아넷 콘타베이트(에스토니아)를 상대하게 된 윌리엄스는 "이제 남은 경기는 보너스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물론 윌리엄스는 아직 'US오픈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나오자 윌리엄스는 "내가 조금 애매하게 표현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남고 싶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팬들을 향해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계속 저를 응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연합뉴스

대유위니아 그룹, 광주 17개 검도관에 상생 지원금 전달

대유위니아 그룹(회장 박영우)이 최근 광주지역 검도도장에 상생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30일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대유에이텍 권의경 대표이사가 지난 29일 광주시검도회를 방문해 광주 17개 검도관에 각 100만원씩 모두 1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대유위니아 그룹에서 마련한 체육소상공인 성금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광주지역 도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금을 마련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서울과 성남지역 검도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광주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광주지역 검도관 지원은 검도수련을 하고 있는 박영우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애인 US오픈골프 우승 이승민 KPGA 투어 LX 챔피언십 출전

7월 장애인 US오픈 골프대회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 이승민(25)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LX 챔피언십(총상금 6억원)에 출전한다.

LX 챔피언십은 9월 1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안산시 아일랜드CC(파72·7318야드)에서 열리는 올해 신규 대회다.

이승민은 지난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장애인 US오픈에서 최종합계 3언더파 213타를 기록, 펠리스 노르만(스웨덴)과 연장전을 치른 끝에 우승한 선수다.

자폐성 발달장애 3급인 이승민은 미국골프협회(USGA)가 올해 창설한 장애인 US오픈 첫 우승자가 됐고, 또 때마침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맞물려 더욱 화제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승민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2017년 KPGA 투어 프로 선발전에 합격한 이승민은 발달장애 2급이었다가 골프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 3급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이승민이 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대회가 이승민의 통산 20번째 KPGA 코리안투어 출전이고, 올해에만 6번째 대회다.

그는 2018년 제14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과 올해 SK텔레콤오픈에서 컷을 통과했다. 두 대회 모두 62위의 성적을 냈다.

이승민은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주신 주최사 LX홀딩스에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만큼 포기하지 않고 컷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유일하게 2승을 거둔 김비오(32)와 28일 끝난 군산CC오픈 우승자 서요섭(26), 21일 제주도에서 막을 내린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코리아를 제패한 옥태훈(24) 등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2관	헌트
3관	육사오(6/45)
4관	육사오(6/45)
5관	리미트
6관	육사오(6/45)
9관	한산: 용의 출현
7관 씨네커플	탑건: 매버릭, 불릿 트레인,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펫
8관 씨네커플	헌트,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포시즌_실내악 시리즈 II
2인 가극 아파트
일시 : 2022. 9. 19.(월)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 9. 1.(목)~ 9. 30.(금)
매주 수~일 17: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